

# 의정부 칼바람을 녹이는 사람들의 열기



<상도> 한 편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 날을 지새우며 등분서주하는 스태프들의 노고는 대단하다. 특히 촬영 장소에 제일 먼저 도착해 소품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는 소도구 담당의 몸고생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측석에서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똑딱 만들어내기도 하고, 마대천을 태워 피워오르는 연기로 그럴싸한 물안개를 연출하기도 하는 그들은 마술의 손을 가진 듯하다. 장터 장면이 많은 <상도>의 경우, 세세히 신경써야 할 소품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짐신 하나도 소금물에 담갔다 말리기를 반복해야 제 모양을 유지하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

의정부의 겨울은 유별나다. 바람이 거칠고 매섭기가 어느 정도인지 의정부에서 군복무를 했던 사람들은 다 안다. 내의를 두 겹씩 포개 입어도 하체가 덜덜 떨린다. 서울에 비하면 적어도 마이너스 3도, 체감 온도는 그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해 12월 22일, 특집 기획 드라마 <상도>의 야외 세트장. 의정부 산기슭의 'MBC문화동산'은 마치 신병교육대의 새벽처럼 어둠에 묻혀있었다.

06:00

아직 여명이 밝아오기도 전에 소도구와 의상을 실은 트럭의 문이 열린다. 곧이어 연기자들이 도착하여 자신들의 옷을 찾아 입

을 것이다. 이들 차량은 전날 전라북도 금산 세트장에서 녹화를 마치고 새벽 4시쯤 의정부에 도착했다. 금산 지역에 폭설이 내려 차가 엉금엉금 기어서 오다보니 잠잘 시간은 길에다 헌납했다.

드라마 녹화팀의 소도구 담당은 언제나 가장 먼저 세트장에 도착해서 가장 늦게까지 현장을 지킨다. 소품 하나까지 꼼꼼히 챙기기로 유명한 연출가이니 녹화 내내 현장을 지켜야 한다. 언제 어느 컷을 찍다 말고 "소도구! OO 없어요? 그게 있어야겠는데" 할지 모른다.

실제로 이 날도 오전 촬영 때도 대본에 없던 애드리브가 필요해 연출가가 "소도구, 돈 좀 주세요" 하니까 곁에 있던 소도구 담당이 엽전을 찾아다준다.





곧이어 분장실에 불이 켜진다. 아침부터 촬영 스케줄이 잡힌 연기자들이 인근 단체 숙소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분장실로 들어선다. 분장팀의 손놀림이 빨라진다. 사극은 분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심한 경우 한 연기자에 두세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몇몇 연기자들이 자신의 의상과 소품들을 챙겨 들고 분장실로 들어선다. 그들의 얼굴에 졸음기가 남아있다. 아침 식사를 묻자, 숙소 앞 식당에서 간단히 때웠단다.

## 07:00

촬영팀과 조명팀, 연출팀이 관광버스에서 내린다. 'MBC문화동산'에도 조금씩 어둠이 걸린다.

소도구 담당은 야외 세트장으로 달려간다. 오직 <상도>를 위해 준비된 세트장이지만 미리 손질해둘 일들이 있다. 충주와 금산으로 다녀오느라 비워두었던 장터를 둘러보는 일이다. 장터에는 유기, 옹기, 사기 등 그릇부터 쌀, 콩, 팥 등 곡식과 북어, 말린 오징어 등 건어물, 그리고 지금은 우리 생활 현장에서 자취를 감춘 키, 채, 포아리 등 조선시대 장터에서 볼 수 있었던 물건들이 즐비하다.

가끔 인근 야산에서 야생동물들이 내려와 잔치를 벌이고 돌아가 버려 낭패를 당한 기억들이 있는 탓에 소도구 담당은 지난주에 촬영





하고 덮어두었던 소품들을 확인한 뒤에야 안도할 수 있다.

하필이면 이른 새벽의 녹화 장면이 장터였다. 햇볕이 들지 않아 조명을 켜야 한다. 연기자들과 스태프들은 힐끔힐끔 동쪽 하늘을 바라본다. 아직 햇살이 들지 않는다. 짙신 속에 버선을 신고, 그 속에 운동화나 구두를 신었지만 언 땅의 한기 때문에 발이 시리다. 골목 어귀에 대기중인 행인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 저마다 귀마개를 하고 있거나 두터운 외투를 끼입고 있다가 큐사인이 나면 어느새 조선시대 서민 복장을 하고 행인이 된다.

## 09:00

주막에서 한 사나이가 마당가에 놓인 가마솥 아궁이에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지핀다. 훈기를 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곧 임상옥(이재룡 분)과 사당패가 한바탕 춤판을 벌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는 중이다. 주막이니 황량한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고, 아궁이에서 작은 연기라도 피어나야 사실적인 화면이 될 테니까.

또한 임상옥이 돌아오면 사당패와 술을 마시고, 춤판을 벌이는데 가마솥에서 뜨끈뜨끈한 국을 퍼주어야 한다.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도록 국을 데우는 것이다. 완벽한 사실주의를 추구하는 사나이들의 마음 씀씀이가 시청자들의 안방에까지 전달될 듯싶다.

오랜 시간 촬영장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스태프와 연기자들은 금세 끈끈한 정으로 묶인 한 식구가 된다. 녹화 순서를 기다리면서 조명 곁에 모여 몸을 함께 녹이기도 하고 따뜻한 차를 준비해와 인심 좋게 나눠 마시기도 한다. 추운 날씨 때문에 한복 위에 담요를 뒤집어쓰거나, 파키를 걸쳐 입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것은 다반사.





녹화장에도 햇벌이 들기 시작한다. 한가닥의 햇벌을 쫓아 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분장을 마친 연기자들이 주막 마당으로 들어선다. 사당패의 두목 길천구(김용건)와 북태, 역쇠, 초례, 채연, 이뿐이, 연화 등이 나타난 것. 그런데 젊은 여성 연기자들의 옷차림이 낯설다. 조선시대 여인네 옷에다 현대의 재킷을 걸쳐 입었는데 앞뒤를 뒤바꿔 입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녹화중에 틈틈이 연기자들이 조명 라이트 곁으로 모인다. 여자 연기자들은 라이트에 손과 얼굴을 가져간다. 얼굴이 얼어 있으면 화면이 어색할 거라며. 분장 담당은 얼어버린 콤팩트를 라이트에 녹이면서 연기자의 얼굴에 난 상처를 감춰준다.

주막 뒷마당에서는 아직 녹화 차례가 오지 않은 연기자들이 석유 난로를 켜놓고 모여있다.



## 10:00

그때 “안녕하세요” 하는 중년 여인네들의 인사가 촬영장을 흔든다. 나 문희와 이숙, 임상옥의 어머니와 주막에서 일하는 안주댁이다. 이들은 호호 손을 불고 양지를 찾아다니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대기 연기자들과 촬영에 몰두하고 있는 스태프들 앞에 빵봉지들을 꺼내 놓는다. “시장하신 분들, 한 쪽씩 드세요” 하는 안주댁의 인사에선 조선시대 주막에서나 볼 수 있었을 법한 넉넉한 인심이 묻어난다. 주막 마당의 평상 위에도 빵봉지를 풀어놓고, 안주댁이 버너에다 물을 끓인다. 1회용 컵에 봉지 커피를 하나씩 쏟아부으며 커피를 한 잔씩 돌리겠다.

연출가 이병훈은 <상도>의 강점 가운데 하나가 ‘거침없는 팀워크’ 라고 한다. 작가 최완규, 촬영감독 김영철, 연출과 조연출 등 <허준> 시절부터 호흡을 함께해 온 드림팀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드라마에 출연하는 연기자들 또한 드림팀으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 12:40

점심 시간. 거의 모든 장면들을 시간표에 맞춰 녹화하는 데도 불구하고 2~3분씩 오버를 한 탓에 점심 시간이 좀 늦어졌다. 주문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을 마치고 우르르 녹화장으로 달려간다. 누구 한 사람, “자, 갑시다” 하는 소리도 없는데 모두들 제자리에 서서 녹화를 시작한다.





## 15:00

헬리콥터가 지나가며 NG를 낸다. 의정부 지역에 군부대가 많아서 가끔 휘방을 놓는다.

겨울하는 짝기도 하지만 오후가 되면 햇살에 힘이 없다. 겨울바람이 다시 날을 세우고, 연기자들은 몸을 움츠린다.

임상옥 일행이 한양에서 장사를 잘해 돈을 께쪽에 담아 말 두 필에다 나눠 싣고 마을에 들어선다. 말들은 한 시간 전에 도착해서 단 한 컷에 얼굴을 내밀고 돌아간다.

미금(홍은희), 정치수(정보석), 다녕(김현주), 박주명(이순재) 등이 분장을 마치고 나타난다.



## 16:40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분과 소속 회원들과 어린이들이 견학을 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말로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드라마 촬영 현장을 찾아온 것이다. 드라마가 인기 있어서 찾아온 손님이니 문전박대할 수는 없지만, 제작진에겐 썩 반가운 손님이 아니다. 미세한 잡음도 용납되지 않는 녹화 현장에, 게다가 어린이 구경꾼이 많으면 도움이 될 리가 없다.

금쪽 같은 겨울해가 서산마루에 걸려있지만 연출가 이병훈은 예의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방문객들 앞에 선다.

“〈상도〉는 올바른 상도를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상인들의 삶을 통해 실물 경제를 공부하고, 우리 역사상 뛰어난 상인인 임상옥의 삶을 통해 청소년들도 ‘상도’를 배웠으면 합니다. 대학 교수들과 당시 화폐 가치를 쌀을 기준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한국 드라마는 물론이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처음 밝힌 내용입니다. 한 냥, 한 푼을 비교해보고 그 시절과 지금의 물가를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연출가 이병훈은 드라마에 출연중인 연기자들과 스태프들을 한 사람씩 소개한 후 방문객들의 요청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다시 카메라 앞에 서서 큐사인을 낸다.

그 사이 〈허준〉 이후 다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조연출 김근홍은



방문객을 녹화 현장과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세트장을 구경시킨다. 녹화에 지장을 주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녹화장 방문과 연기자를 만난 소중한 추억에다 학습 효과를 얻어주기 위함이다.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상도>를 밀쳐두고, 초췌한 얼굴로 <허준>의 생가와 유의태 집을 설명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인다. 방문객을 안내하는 이런 일은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19:00~

해가 지면 날짐승도 날개를 접고 집으로 든다는데. <상도>는 서산 너머로 해가 떨어져도 카메라를 거두지 않는다. 장사하는데 밤낮이 없는 이치와 같다. 장사꾼들 이야기에는 무대도 장터여서 더 더욱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야외 촬영장의 조명팀이 바쁘게 움직인다.

오늘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말 것! 드라마 제작진의 오랜 관습이며 장사꾼들의 상습 수칙이다.

**MG**



<상도>의 촬영 현장에는 녹화 과정을 궁금해하는 손님들이 의외로 많다. 촬영장은 잠시 쉬는 동안도 장비 점검하랴, 의상 갖춰 입으랴 모두들 분주하지만 먼 길 찾아온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에서 제작진의 넉넉한 인심을 엿볼 수 있다. 새벽길 달려와 시작된 촬영은 대부분 한밤중까지 이어지지만 그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는다.

글 | 박상대 자유기고가 사진 | 송정근 프리랜스 포토그래퍼



## 〈괘이부리말 아이들〉에 이어 〈봉순이 언니〉에 도전!

“책은 인생의 우물에서 운명을 길어올리는 두레박이다.” 소설가 최인호의 이 말은 독서의 소중함을 적절히 집어내준다.

MBC가 매주 토요일 밤 9시 45분에 방송하는 〈!느낌표〉의 독서 캠페인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는 인생의 우물에서 운명을 길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다. 책을 즐겨 읽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컴퓨터 시대에도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한 달 반 동안 책 읽기 캠페인을 벌였던 〈괘이부리말 아이들〉(김중미 지음, 창작과비평사)이 당당히 베스트셀러 1위로 떠올랐다. 괘이부리말? 그것이 뭐지? 하는 호기심으로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은 그것이 인천에서도 가장 오래된 빈민 지역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쌍둥이 숙자와 숙희가 살고 있는 정 많고 사연 많은 동네라는 정도쯤은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알 만큼 유명한 책이 돼버린 것이다.

우리 방송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이웃들로부터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그 소중함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책을 읽자’는 구호성 캠페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읽을 도서를 선정하고 길거리에서 나가 홍보하고 또 책을 읽은 이들에게 또다른 책을 선물하고 독후감을 모으는 등 일일이 발품을 팔아 책 읽기의 즐거움을 하나하나씩 일깨우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은 매주 그 자체만으로도 한 편의 리얼 드라마를 연출해내고 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이들의 주옥 같은 독서 예찬은

또 얼마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는가.

〈MBC가이드〉는 2002년을 맞아 연중 기획으로 ‘〈!느낌표〉와 함께하는 독서 예찬’을 마련한다. 매달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와 함께 발맞춰 선정 도서를 소개하고, 작가들의 ‘독서 예찬’도 들어보며, 또 시청자들이 보내온 독후감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 달에는 〈괘이부리말 아이들〉에 이은 두 번째 선정 도서인 〈봉순이 언니〉의 작가 공지영으로부터 ‘책 읽는 즐거움’이란 주제로 글을 받았다. 장편 소설인 〈봉순이 언니〉는 작가의 고향인 서울 아현동 언저리를 배경으로 이제 막 다섯 살이 된 ‘짱야’가 식모인 ‘봉순이 언니’와의 만남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삶에 눈떠가는 과정을 놀라운 기억력으로 복원해낸 작품이다. 60~70년대 고도 성장의 뒷골목에서 한없이 짓이겨지고 추락하면서도 삶에 대한 낙관을 버리지 않는 ‘봉순이 언니’의 삶을 반성 어린 눈길로 감싸안으며 그 속에서도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씨앗을 건져올리는 작가의 붓끝이 여물다. 작가는 그늘진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 스스로 가난해서 다른 가난한 이를 보며 진정으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이들, 우리가 그들을 불행하고 어리석다고 말한다고 해도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이 캄캄한 겨울 하늘에서 떨고 있는 작은 별들 같은 이들을 위한 찬가로 읽혀졌으면 좋겠다고 책머리에 밝히고 있다.

자, 〈괘이부리말 아이들〉에 이어 이제 〈봉순이 언니〉다!



추천 도서 <봉순이 언니> 작가 공지영의 '독서 예찬'

## 고독 위로 내리는 축복



나 이를 먹어갈수록 사람을 만나기가 더 힘들어진다. 일상은 더 분주해지고 친구들은 가정에 매여 점심 식사 시간 한번 맞추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대부분 친구들과의 우정은 전화로 풀고 있지만 아이들이나 가사일 때문에 그나마도 힘들어진다. 게다가 적조해지면 질수록 사실 할 이야

기는 줄어드는 것이다. 집안에 틀어박혀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는 나로서는 혼자인 시간이 좋다. 음악을 듣거나 하는 일도 그렇지만 느긋하게 햇살이 비치는 창가가 있고 길게 드러누울 수 있는 의자가 있으며, 아직 읽지 않고 아껴둔 책이 몇 권 쌓여있으면 사실 나는 아주 행복해진다. 그 옆에 맛있는 과자나 오징어나 굴이 든 바구니가 놓여있다면 풍경은 완벽해진다. 나는 너무나 행복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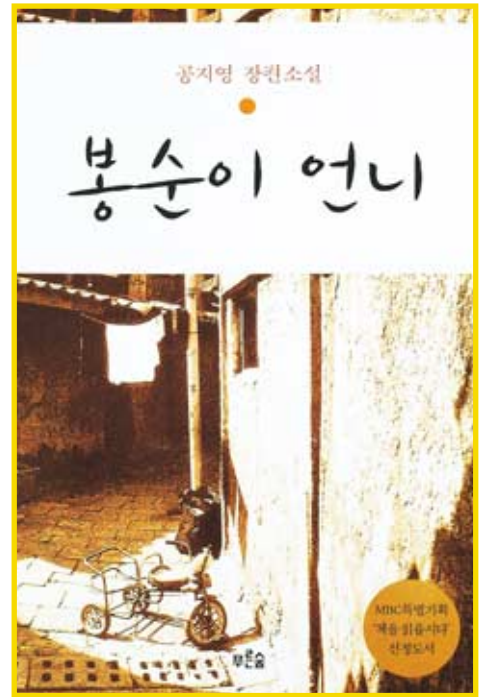
누군가 내게 공지영씨를 만족시켜주는 방법이 너무 쉽다는 농담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맛있는 음식하고 책만 주면 너무나 즐거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책은 내게 취재원이자 선생이자 친구이다. 한때 책을 사는 값으로 돈의 가치를 셈하던 기특한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세상에 그 돈이면 시집이 몇 권인데"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 후 그 돈이면 소주가 몇 병인데라고 가치관이 잠시 바뀐 일도 있었지만 역시 돈의 가치는 책으로 셈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

가끔 책을 사면서 나는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돈 1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책을 사는 것, 그 책을 읽는 것, 그 책을 읽고 나의 정신적 지평이 한 뼘 넓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같은 책을 읽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내 인생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즐거움을 주는 것을 꼽자면 맘에 맞는 친구들 서넛과 맛있는 안주를 놓고 술을 마시는 것하고 혼자 방구들이 뜨끈뜨끈한 산골집에 들어가 실컷 책을 읽다가 오는 것이다. 눈이라도 내리는 겨울밤이라면... 하는 상상은 생각만으로도 나를 행복하게 한다. 혼자 책을 읽는 즐거움은 유독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에게 상처입곤 하던 내게 내려진 축복이다. 워즈워드가 그의 시구에서 말한대로 '고독 위로 내리는 축복'(Bliss on the solitude)인 것이다.

**MG**

글 | 공지영 소설가



# 내 가슴속에 살아있는 ‘또다른 나’



스타에게도 햇병아리 신인 시절이 있었다. 낯설고 게다가 조금은 촌스럽게까지 보이지만 일에 대한 열정은 순수했고, 지금의 그를 만든 원동력이었다. 〈MBC가이드〉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스타의 데뷔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작품을 〈MBC가이드〉에 실렸던 사진을 위주로 소개하면서 그 뒷얘기와 사연을 직접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한다.



**지금 나? 임상옥!** 일주일 내내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 요즈음엔 이재룡이라는 이름보다 임상옥이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다. 돌이켜보면 맡았던 모든 배역이 다 소중하지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상도〉의 임상옥 역할은 연기자로서 특별히 큰 축복이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방송에 입박해서 나오는 대본, 연일 계속되는 촬영에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연기 경력 16년차. 이제는 편하고 쉬운 역할보다 온몸과 마음을 다해 몰입할 수 있는 역할이 소중하다.



1986년 MBC 탤런트 18기로 연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재룡은 한결같이 성실한 태도로 편안하고 탄탄한 연기를 선보여왔다. 그가 가장 힘든 배역으로 꼽는 작품은 바로 〈종합병원〉(위 사진). 그는 〈사랑이 뭐길래〉에서 신애라를 따라다니던 착하고 순수한 철진 역을 맡았다가 지난 1999년 주말 연속극 〈남의 속도 모르코〉에서 드디어 신애라와 부부로 출연하게 되었다.

**데뷔, 그리고 데뷔작** MBC 공채 탤런트가 됐을 때의 기쁨과 떨림. 바로 어제 같은 그 순간이 1986년의 일이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다니던 시절에 덜컥 합격해버린 탤런트 시험. 방송사에 발을 딛고 나서 이 길이 내 길인가 잠시 방황도 했지만, 이내 ‘연기가 하고 싶다’는 내 인생의 절대 과제 앞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단역부터 시작했던 연기자 생활. 데뷔작을 꼽으라고 해도 너무 많은 작품에 출연해서 어느 것이 시작이고 어느 것이 마지막인지 모를 정도로 슬한 드라마에 출연했다. 예를 들면, 〈제2공화국〉의 4·19 학생 대표, 〈조선왕조 5백년〉의 양반 1, 2, 전의, 일본 첩자, 〈수사반장〉의 범인, 아! 〈수사반장〉은 그때 주인공이라고 하길래 기대하며 나갔다가 여장 강도를 시켜서 무척 실망했던 기억도 있다. 그래도 그 시절, 어느 배역이건 참 열심히 했다. 언젠가 내게도 〈인간시장〉의 ‘장충찬’ 같은 배역이, 〈여명의 눈동자〉의 ‘최대치’ 같은 배역이 주어지지겠지 하는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서.

**사랑이 뭐길래? 철진** 기억들 할까? 〈사랑이 뭐길래〉에서 신애라를 따라다니던 착하고 순수한 남자, 철진. 당시 장안의 화제였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덕에 나 또한 인기 있는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드라마 녹화장엔 언제나 연기자수만큼의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연일 기록을 갱신하는 시청률에 덩달아 나의 기분도 상한가를 쳤다. 팬레터라는 것도 받아봤다. 나 역시 기자들에 둘러싸여 인터뷰도 했다. 쇼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춤도 쳤다. 신인 시절에 거머쥐게 된 행운. 연기자 이재룡이라는 이름을 시청자들에게 알린 드라마가 바로 〈사랑이 뭐길래〉이다.





6·25 특집극 <유월에서 팔월 사이>에서는 지금의 아내가 된 유호정과 함께 출연했다.

**일과 사랑** 다른 방송사에서 <옛날의 금잔디>라는 작품을 할 때, 한 신인 여배우를 만났다. 상대역이라고 그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 나는 난감했다. 저렇게 내성적이고 얌전한 여자가 과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걱정. 그리고 걱정했던 대로 텔런트라는 만만치 않은 직업에 힘들어하는 그 배우를 위해 나는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깨워주고 힘을 북돋워주었다. 때로는 집 앞까지 가서 내 차에 태워 함께 촬영장에 가기도 했다. 그 드라마가 끝났을 때 그를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작품에 소개해주기도 했고, 이어 <유월에서 팔월 사이>라는 단막극과 <여자의 방>이라는 작품에서는 같이 출연하기도 했다. 이쯤에서 다들 눈치챌겠지만 그의 이름은 유호정이고, 우리는 5년의 연애 끝에 지금 함께 산다.

**가장 힘들었던 배역은?** <종합병원>! 고생스러웠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찍었고, 동시에 그만큼 보람 있었던 드라마. 처음에 <종합병원>의 1년차 레지던트 김도훈 역을 맡았을 때만 해도 그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를 얻을 줄 몰랐다. 그저, 내 자신이 정말 의사가 된 듯 힘들고 바쁘게 병원을 뛰어다녔던 기억뿐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연기의 맛이 무엇인지 알게 됐던 것 같다. 함께 연기했던 배우들과의 호흡도 너무나 잘 맞았고, 시청자들의 사랑을 느낄수록 나 자신의 열정도 점점 뜨거워짐을 느꼈다. 연기가 내 몸 속에 녹아드는 경험을 갖게 해준 드라마가 <종합병원>이다.



<선택 토요일이 좋다>의 MC(1994년), <종합병원>으로 <MBC 방송대상> 드라마 부문 우수상 수상(1994년), 수목 드라마 <이혼하지 않는 이유>(1996년), 특별 기획 드라마 <위험한 사랑>(1996년)(왼쪽 사진부터).

**나를 있게 해준 수많은 또다른 나** <아직은 마흔아홉> <파일럿> <정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바보 같은 사랑> <파도> <동양극장>... 참으로 많은 내가 있었다. 무수한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은 결국은 또다른 나였음을 느낀다. 삶이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것이다. 촬영이 시작되고 조명이 쏟아지는 매 순간 나는,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음을 자부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겐 잊혀져가고 있는 그 모든 드라마 속 나의 모습이 여전히 내 가슴속에 살아있는 '또다른 나' 라고 생각한다.

**에필로그, 다시 <상도>!** 오늘도 <상도> 촬영장으로 향한다. <상도>를 촬영하며 나는 자꾸 부자가 되는 꿈을 꾸다. 그리고 소망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임상옥과 함께 부자가 됐으면 하고, 몸도 마음도 진짜 부자가 되는 드라마.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드라마. 그래, 나는 지금 임상옥이다!

**MG**

구술 정리 | 고혜림 방송작가

## 연출가 이병훈이 본 이재룡



● 이재룡과는 〈조선왕조 5백년〉을 통해 만났다. 비록 행인 1, 2, 의관 등 엑스트라로 출연했지만 사극 발성이나 대사 처리 면에서 또래에 비해 연기력이 인정돼 보였다.

이재룡한테는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예나 지금이나 결코 튀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 또 하나는 워낙 착실하고 성실하다는 것이다.

〈상도〉는 임상옥이라는 인물 위주의 스토리라서 촬영의 거의 대부분을 타이틀롤이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주인공의 연기력이 드라마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우선 안정적인 연기가 필수였다. 열의를 가지고 혼신을 다해 할 수 있는가를 고려했다. 또 모든 출연자와 스태프와 걸리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면에서 이재룡만큼 적역은 없다고 생각했다. 방송이 나가면서 이런 내 결정에 조금도 후회해본 적이 없다.

이재룡을 캐스팅하는 데 나를 가장 애먹인 것은 다른 아닌 '거부의 이미지'였다. 흔히 거상은 독심과 배짱, 강한 이미지로 상징되는데 이즈음 나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동서고금을 통해 사실 장사꾼은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였다. 편만한 느낌과 인상, 거기에 타고난 유머 감각. 그것이 거상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이다. 나는 임상옥 역에 이재룡을 낙점하는 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촬영이 진행되면서 이재룡이라는 배우가 부드러움뿐만 아니라 강한 면도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주인공이 갖춰야 할 조건을 두루 갖춰 더할 나위 없이 흡족할 따름이다. 또 선후배 연기자는 물론 제작 스태프들까지 하나하나 챙기고, 굶은 일도 마다않고 맡아서 해내는 걸 보면 내가 복덩이를 얻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

## 연출가 장두익이 본 이재룡



● 지난 1990년 〈아직은 마흔이홉〉이라는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깔끔한 외모의 신세대 역할을 맡아줄 신인이 필요했다. 이재룡을 주목한 것은 동기들 중에서 비교적 가능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와의 인연은 〈MBC 베스트극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촬영 핑크를 내는 바람에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참이었다.

그를 캐스팅하면서 "중요한 배역이다. 잘 해주면 클 것이다"라고 격려를 하는 동시에 자신만의 연기 노트를 만들 것을 권유했다. 나름대로 연기에 대한 계획과 공부를 하라는 뜻이었다. 권유라기보다는 다그침에 가까웠지만, 그러면서 드라마 초반에 그를 말 그대로 쥐잡듯이 잡았다. 한 6주가 지났을까?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기본적인 연기 기초가 깔려있는 연기자라서인지 안정되게 자리 잡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당시 작가 이금희도 그와 상대역인 최유라까지 흡족해하며 막내로서 아주 예뻐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의 나이 이제 서른여덟. 중년 배우로 올라서기 전에 그가 해줘야 할 역할은 아직도 많다. 군더더기 없는 마스크에 스킬(skill)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배우지만 그를 볼 때마다 뭔가가 하나 비어있는 느낌이 있다. 이 점은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좀더 인간적인 매력이나 카리스마가 추가된다면 그는 정말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나이도 되었고.

요즘은 주인공이라는 개념이 예전과 달리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도식적인 성격보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 많이 등장한다. 그가 그런 복잡 미묘한 캐릭터를 훌륭히 소화하길 기대한다.

아침 드라마 〈아직은 마흔이홉〉(1990년)에서 그는 깔끔한 외모의 신세대 역을 맡았다. 당시 연출가 장두익은 "기본적인 연기력을 갖춘 몇 안 되는 신인 탤런트였다"고 그를 회고하고 있다.



## 2001 Best of Best

“월드 뮤직이 뭐예요?” “월드 뮤직이요, 음... 지금 이 세상의 음악이죠.” 요즘 이런 선문답(?) 같은 대화를 사람들과 자주 주고받곤 합니다. 월드 뮤직, 비 영어권 음악 등 최근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단어들이죠. 낱말 뜻만으로 풀이를 한다면 월드 뮤직은 분명 우리곁에 존재하는 지구상의 모든 음악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있는 월드 뮤직은 영어권 음악과는 다른, 그 나라 고유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음악이란 느낌을 전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 비 영어권 음악이란 표현도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식의 “월드 뮤직은 어찌고 저찌고...” 하는 개념의 문제보다는, 그 음악의 전통, 완성도, 국제적 지위를 떠나 ‘한국 사람이 듣기에 어떠한가 가야닐까요? 우리에게 자주 소개되지 못해 낯설 뿐, 전세계 각 나라의 음악들 속에는 우리가 충분히 즐기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생전 보도 듣도 못했던 나라의 음악이 우리의 정서와 잘 부합될 때, 그 신기함과 기쁨은 생각 외로 크답니다. 감동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니까요.

자, 오늘 첫 만남에는 지난해 국내에 발매된 월드 뮤직 음반 가운데 몇 장을 소개합니다. 선택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음반 전체의 무난하고 편안한 감상이 가능할 것! 본문에서 존칭은 생략합니다.

### Henri Salvador(앙리 살바도르)

Chambre Avec Vue(샹브르 아베크 뷰 : 전망 좋은 방)

앙리 살바도르는 현재 샤를르 아즈나부르와 함께 샹송계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1917년생이니 우리 나이로는 무려 85세인데, 지난해 발표한 이 음반이 프랑스 내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냈다. 이미 프랑스의 가장 큰 음악상인 ‘음악의 승리상’을 받았고, 수십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타이틀곡 ‘전망 좋은 방’은 음반의 백미이다. 달콤한 보사노바 리듬과 아스라한 보컬, 여기에 어우러지는 세련된 트럼펫 연주에선 거장의 여유가 느껴진다.



### The Gipsy Kings(집시 킹스)

Somos Gitanos(소모스 히타노스 : 우리들은 집시들이다)

‘현존하는 최고의 집시 밴드’. 집시 킹스를 표현하는 데 별 무리가 없는 말이다. 그러나 이들도 처음부터 잘나갔던 건 아니다. 생계를 위해 프랑스 남부 휴양지의 나이트 클럽들을 전전했던 때도 있었고, 유명 연예인들의 파티 밴드로 맹활약(?)을 하기도 했으니까.

새 음반에는 타이틀곡부터 이들 특유의 애수어린 멜로디와 물방울 튀듯 영롱한 플라멩코 기타 연주가 흐른다. 보브 말리의 곡을 리메이크한 ‘One Love’는 이들의 장기를 유감 없이 발휘하는 대목이다.



### Eros Ramazzotti(에로스 라마조티)

Stilelibero(스틸레리베로 : 멋진 자유인)

에로스 라마조티는 칸초네의 쇠퇴로 인해 기울어가던 이탈리아 대중음악의 체면을 살려준 슈퍼스타이다. 우리나라에도 그의 팬은 상당한 숫자에 이른다. 음반의 첫번째 싱글 ‘Fuoco Nel Fuoco’ (푸코 넬 푸코 : 타오르는 불꽃)는 단숨에 듣는 이를 사로잡는다.



경쾌한 고고 리듬, 찰랑거리는 어쿠스틱기타 연주, 유려한 멜로디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탈리아 음악 특유의 낭만과 서정미를 동시에 전한다. 막 따낸 오렌지를 한 입 가득 베어 문 바로 그 느낌이다.



## The Legend Of Sara

The Gipsy Musical

음악만 놓고 본다면 집시 민족은 전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한 혈통을 지녔다. 집시의 이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유럽의 음악은 상당히 달라졌을 거란 생각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프랑스 집시 뮤지컬 <사라의 전설>은 집시 음악의 여러 모습을 잘 담고 있다. 애절한 발라드에서 강렬한 비트의 곡들까지, 여기에 뮤지컬 특유의 드라마틱한 구성도 음반의 완성도에 한몫을 담당한다.



## Café Brasil

'카페 브라질' 앨범은 '쇼루' (Choro) 음악 모음집이다. 포르투갈어로 '흐느끼다' 라는 뜻을 가진 쇼루는 씬바의 뿌리가 된, 브라질 음악의 중요한 근간이다. 포르투갈 음악을 비롯해 폴카, 왈츠,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의 리듬이 결합된 쇼루는 전체적으로 야기자기하고 예쁜, 마치 클래식 실내악 같은 느낌을 주는 음악이며 따스한 느낌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최고의 인기 여기수 마리자 몬치를 필두로 조영 보스쿠, 파울링유 다 비올라, 마르팅유 다 비올라 등 브라질의 국제 스타들이 대거 참여해 쇼루의 매력을 전한다.



## Fado Collection 1950~1999

포르투갈의 전통음악 '파두' 는 분명 슬픈 분위기가 많다. 그것은 포르투갈이 겪어온 기나긴 슬픔의 역사를 바탕으로 생겨났기 때문인데, '파두 컬렉션 1950~1999' 는 두 장의 음반에 정통 파두 음악이 36곡이나 담겨있다. 비교적 우리 정서와 잘 어울림에도 그간 변변한 음반이 소개된 적이 없었기에 이 모음집은 더욱 반가움을 준다. 파두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한 지난 50년대부터 약 반세기 동안의 변천사는 물론, 파두의 양대 발원지인 '리스본 파두' 와 '코잉브라 파두' 까지 비교, 감상할 수 있다.



## La Buena Vida(라 부에나 비다)

Gran Panorama(그란 파노라마 : 거대한 전경)

스페인 출신의 남녀 혼성 6인조 그룹 '라 부에나 비다' (멋진 인생)는 독특한 느낌을 전하는 팀이다. 스페인 특유의 매서운 정열보다는 상충풍의 낭만, 퇴폐미와 허무, 복고적인 연주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친근감을 주는 예쁜 멜로디 라인과 속삭이는 보컬이 쉽게 잊혀지질 않는다. 내지에 수록된 모든 가사의 우리말 번역도 매력 만점이다. **MG**



※ 이 글을 쓴 송기철은 음악칼럼니스트이자 현재 FM (송기철의 월드 뮤직) 진행자이기도 하다. 이 달부터 세계의 보석 같은 음악들을 주제로 한 '송기철의 숨은 음악 찾기' 를 연재한다.

## 거절에도 고품격이 있거늘...



**일** 마 전, 모 그룹 멤버 중 한 명을 제외할 일이 생겼다. 물론 약간의 무리수를 걱정했지만, 꼭 필요했기에 포기할 순 없었다. 코너의 특성을 한참 들은 매니저, “저희 활동 접었습니다. 그리고 전 결정권이 없고요. 회사 사정상 나갈 수 없네요.” 냉정하고 단호한 말투로 나의 말을 간단히 막아버렸다.

‘그냥 화를 내버릴까?’ ‘결국 내가 참아야 하는 걸까?’ 전화를 끊기 전, 약 0.2초 동안 짧은 갈등을 했다. 그리고 바로 최대한 친절할 말투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속은 쓰렸지만 ‘정말 다음 기회에 또 전화를 걸고 말리라’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 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그 매니저는 계속해서 받지 않았다. 각종 전화를 동원하여 수십 차례 시도 후 성공했으나 여전히 “활동 접었다니까요? 그리고 전 결정권이 없다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대답뿐이었다. 나는 그의 센스 없음에 기분이 상했다. 특히 당시, 연말이었기에 팬 서비스 차원에서 출연할 법도 한데 진성으로 대답하는 것 같아 은근 슬쩍 자존심도 상했다. 억울한 마음에 멤버의 연락처를 알아내 직접 전화를 했고, 상황 설명과 코너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 코너엔 제가 딱이네요. 나갈게요” 하고 호탕하게 웃기까지 했다.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 대답을 받아내



고 나서야 다시 일할 ‘의욕’ 을 되찾았다.

에인끼리도 전화로는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다. 서로의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아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서 섭외 부탁을 하는 나도, 이 말에 수긍할 때가 많다. 많이 부탁하는 만큼 거절도 자주 당하기에, 거절할 때의 말 한마디 매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낀다. 거절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고도의 기술인 것이다.

2002년에는 구성이나 집필보다 섭외 때문에 머리 아픈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거절당하더라도, 고품격으로 당하고 싶다. **MG**

글 | 배성아 〈정오의 희망곡〉 작가

# 젊다! 그만큼 적극적이다!

**5만** 명에 육박하는 회원수를 자랑하는 MBC 인터넷 최고의 동호회 ‘더블존’. 그곳에는 MBC FM4U 〈더블 임팩트〉, 네비게이터 문희준, 각양각색의 음악 등 다양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

네비게이터 문희준만을 떠올려 10대들만의 전용 공간이라고 단정 지으면 큰 오산. 10대 소녀들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초등학생, 주부들도 더블존의 귀한 회원들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신랄한 모니터도 하고 더블존에서 만나 친구가 된 회원들끼리 속내를 털어놓으며 따뜻한 대화도 나눈다.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진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을 인연으로 초대 시삽에 임명, 이 큰 살림을 꾸려가게 되었다는 최정화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블존을 이끄는 힘”이라고 강조하면서 “더블존이 누구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이 가득한 동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 Best of Best 〈더블 임팩트〉의 제작진이 궁금해

지금 이 순간에도 더블존의 자유 게시판, 그 중에서도 자료실에는 막강 자료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팬들이 설새없이 아기자기한 자료들을 등록하고 있는 것.

네비게이터 문희준의 인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자료는 문희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압도적으로 많다. ‘캔디’를 부르던 HOT 시절의 풋풋함에서부터 지금의 신비로운 카리스마까지 문희준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다.

그래도 가장 높은 조회수를 자랑하는 것은 오렌지 프로듀서, 토토로 작가 등 〈더블 임팩트〉 제작진의 숨겨진 미모(?)를 최초로 공개한 사진. 스태프들마저 문희준에 버금가는 지지를 얻고

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더블 임팩트〉의 인기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순간이다.

## Just Only 클릭 필수! ‘더블존 리서치’

방! 방! 방! 방! 방!

어? 이건 뭐지? 더블존 리서치?

생기가 넘치는 더블존의 여러 방들 중에서도 ‘더블존 리서치’는 특히 눈에 띈다. 토요일마다 VJ 김형규와 함께하는 ‘더블존 리서치’ 코너가 이 방에서 완성된다. “〈더블 임팩트〉의 토요일 코너 ‘더블존 리서치’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청취자들의 당당한 자신감이 이 방을 만들었기 때문인지 회원들 사이에서 인기도 최고.

‘2001년 최고의 유행어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던 엽기 노래 5가지는?’ 등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질문이 매주 2개씩 던져진다. 당선(?) 확률은 대학 입시 경쟁률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 특 튀는 질문만큼이나 별난 답변도 홍수. 기발한 상상력으로 채워진 글들을 읽고 있으면 재미있는 만화책을 보는 것만큼 즐겁다. **MG**

〈더블 임팩트〉의 동호회 ‘더블존’  
(<http://club1.imbc.com/club/impact/>)

